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제1일차

제3발표

# 주변지역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군의 OUV

---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



## 주변지역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군의 OUV

권 오 영 서울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인,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야고분군이 지닌 탁월한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탁월한 가치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정리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른바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추출과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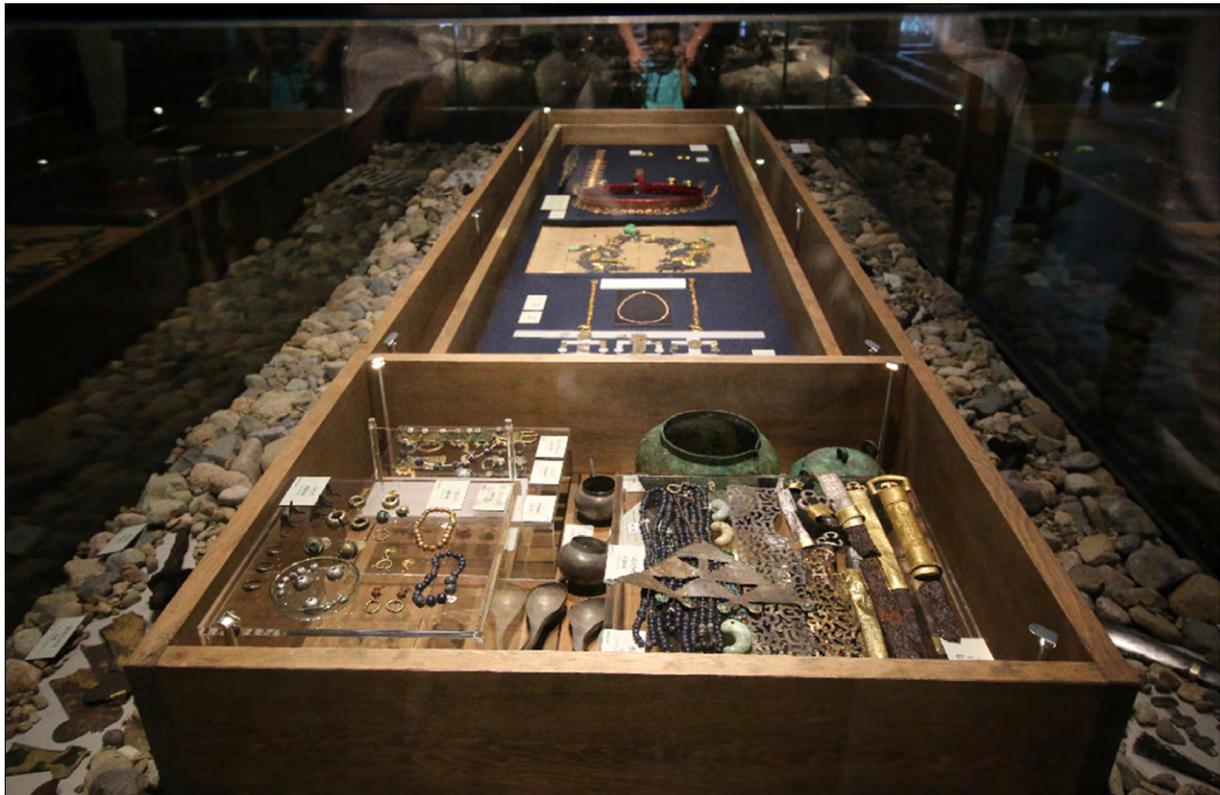
필자도 이러한 노력에 동조하는 의미에서 몇 차례 이와 관련된 작업을 한 적이 있다. 특히 가야고분군과 비교할 만한 외국의 고분군을 대비하는 것에 주력하였다. 가야고분군의 고유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유산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15년에 가야고분군과 일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유산이 포함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등재에 성공하였고, 오래전부터 등재를 추진 중이던 일본의 “모즈(百舌鳥)-후루이치(古市) 고분군”이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새롭게 일본 큐슈 남부의 미야자키(宮崎)에 소재하는 사이토바루(西都原) 고분군(그림 1)도 운동이 진행 중이다. 500m를 넘는 고분(오사카 다이센 고분)까지 존재하며 총 10만기가 넘습니다.



〈그림 1〉 사이토바루 고분군의 횡절모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 모즈-후루이치고분군, 사이토바루고분군은 모두 5-7세기에 속하는 왕릉 및 지역 최고 수장의 무덤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미 등재된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군(그림 2) 역시 시간적으로나 피장자의 성격 면에서 공통성이 강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산들의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였으나 OUV를 본격적으로 비교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보고자 한다. 아울러 시간적으로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중국의 황제릉도 일부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림 2〉 황남대총 특별전(국립경주박물관)

## II. 국내 고분과의 비교

### 1. 고구려 고분

고구려 고분은 북한이 등재한 “고구려고분군(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과 중국이 등재한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묘지(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로 2건이 등재된 상태이다.

전자는 평양에 소재하는 고구려 고분들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횡혈식 석실묘이다. OUV는 i, ii, iii, iv 번을 적용하였다.

후자는 고구려 초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卒本과 國內城 시기의 유산으로서 등재기준 i, ii, iii, iv, v 번을 적용하였다. 중국 遼寧省 桓仁 소재 五女山城, 吉林省 集安 소재 國內城, 丸都山城 등 3개의 왕성, 集安의 太王陵을 비롯한 40기의 능묘로 구성되었다. 능묘 중에는 적석총(그림 3), 봉토석실묘가 모두 포함되며 일부 벽화고분도 포함된다. 양자는 OUV에서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데 후자에서 v 번이 추가된 점이 다르다.



〈그림 3〉 중국 길림성 집안시 산성하고분군의 기단식 적석총

## 2. 백제 고분

가야고분과 비교 대상이 되는 백제 고분 중 한성기를 제외한 웅진기와 사비기의 고분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의 역사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8개의 유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적으로

는 용진기(475-538년)와 사비기(538-660년)에 속하고, 지역별로는 공주(공산성, 송산리고분군), 부여(부소산성과 관북리,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와 익산(왕궁리성, 미륵사지)에 나뉘어져 있다.

유산은 모두 백제의 도성제와 관련되는데 왕성 및 왕궁(공산성, 부소산성과 관북리, 나성), 왕릉(송산리고분군, 능산리고분군), 종교유적(정림사지, 미륵사지) 등 3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공주 송산리고분군과 부여 능산리고분군이 왕릉 및 왕족의 공동묘역으로서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과 비교된다. 송산리고분군과 능산리고분군을 포함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등재기준 ii 번과 iii 번이 적용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riterion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Criterion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위의 서술은 “불교와 건축 기술을 통해 본 한중일의 교류, 그리고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준다.”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 3. 신라 고분

신라고분 중 대릉원지구는 “경주역사유적지구”의 한 부분을 이룬다.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신라사의 발전기부터 멸망기까지를 포괄하는데 남산지구(불교유적 중심), 월성지구(왕궁), 대릉원지구(왕, 왕족의 능역), 황룡사지구, 그리고 산성지구(왕경 방어용) 등 5개의 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대릉원지구를 포함한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불교건축 및 생활 문화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비적인 건물과 유적지가 다수 분포한다는 점, 그리고 1,000년에 이르는 신라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기준 (ii), (iii)에 의해 등재되었다. 문화유산이 본래의 위치에 잘 남아 있어 진정성이 높고, 건축, 탑, 조각, 왕릉, 산성이 모두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완전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인근의 쪽샘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그림 4).



〈그림 4〉 경주 쪽샘지구 적석목곽분 발굴조사 광경

### Ⅲ. 국외 고분과의 비교

세계적으로 왕릉을 포함한 대규모 고분군이 등재된 경우는 의외로 적다. 유라시아 동부를 대상으로 삼더라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지배자를 위한 대형 고분의 축조가 유행하지 않았던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대형 고분을 등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은 동북아시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이 비교 대상이 된다.

#### 1. 중국

중국에서 이미 등재된 유산 중 고분군으로 구성된 유산은 의외로 적다. 순수하게 무덤으로만 구성된 것은 “진시황릉”, “서하황제릉”, “명청황제릉” 정도이고 고분이 포함된 유산은

“은허”, “고대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고분군” 이다.

잠정 등재된 유산 중에서는 “남월국의 유적”, “고대 蜀國의 고고학적 유적” 이 일부 무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가야고분군과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서 “진시황릉”, “남월국의 유적”, “서하황제릉”, “명청황제릉”을 선정하여 보았다.

### 1) “진시황릉”

진시황릉은 인간이 만든 무덤 중 규모면에서나 기술적인 수준에서 세계 최고임이 분명하다. 중심 매장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곽의 병마용갱(그림 5)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미 유산의 가치는 흔들림이 없다. OUV로는 (i), (iii), (iv), (vi)번이 채택되었다.



〈그림 5〉 진시황릉 병마용갱

Criterion (i): Because of their exceptional technical and artistic qualities, the terracotta warriors and horses, and the funerary carts in bronze are major works in the history of Chinese sculpture prior to the reign of the Han dynasty.

Criterion (iii): The army of statues bears unique testimony to the military organization in China at the time of the Warring Kingdoms (475–221 BCE) and that of the short-

lived Empire of a Thousand Generations (221–210 BCE). The direct testimony of the objects found in situ (lances, swords, axes, halberds, bows, arrows, etc.) is evident. The documentary value of a group of hyper realistic sculptures where no detail has been neglected – from the uniforms of the warriors, their arms, to even the horses' halters – is enormous. Furthermore, the information to be gleaned from the statues concerning the craft and techniques of potters and bronze-workers is immeasurable.

Criterion (iv): The mausoleum of Qin Shi Huang is the largest preserved site in China. It is a unique architectural ensemble whose layout echoes the urban plan of the capital, Xianyang, with the imperial palace enclosed by the walls of the city, themselves encircled by other walls. This capital of the Qin (to which succeeded on the present site of Xian the capitals of the Han, Sui and Tang dynasties) is a microcosm of the Zhongguo (Middle Country) that Qin Shi Huang wanted both to unify (he imposed throughout the land a single system of writing, money, weights and measures) and to protect from the barbarians that could arrive from any direction (the army which watches over the dead emperor faces outward from the tomb).

Criterion (vi): The mausoleum of Qin Shi Huang is associated with an event of universal significance: the first unification of the Chinese territory by a centralized state created by an absolute monarch in 221 BCE.

## 2) “남월국의 유적”

2008년에 잠정 등재된 “南越國의 유적”은 궁궐, 왕릉, 水關 등 3개의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왕릉은 文帝 趙昧의 무덤이다. 남월왕릉(그림 6)을 포함한 “남월국의 유적”의 OUV는 (ii)(iii)을 채택하였다.



〈그림 6〉 남월왕릉

As for the criterion (ii):

The archaeological sites of the Southern Yue State and its cultural artifacts exhibit an important concourse of the culture of the central China and multiple regional cultures and values and exert far-reaching impact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ingnan culture.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ern Yue State enhanced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Central culture, the Baiyue culture and the overseas culture. Such integration is best embodied in the artefacts unearthed from the tomb of the Southern Yue King. Apart from the sizable artefacts unearthed in representation of the Central culture, many others unearthed also reveal multiple regional cultures, such as those of Yue culture including the geometric-patterned potteries, grand bronze vessel in Yue style, the bronze incense burners, bronze mirror and Gou Diao music instrument of Wuyue culture, the Zhangyi dagger, kettles in garlic-head shape of the Qin culture, the bronze decorations, goat-head golden leaf in almond shape of the Xiongnu culture, fresco painting on the tomb chamber, bronze vessel and mirror of the Chu culture, or lacquer grand screen with multiple culture elements that integrated the Chu and Yue culture. The artifacts unearthed such as the African elephant teeth, Persian silver box, frankincense from the Red Sea, little golden bubble in welded pearl are witness of the exchange between China and the overseas about 2000 years ago. They prove the profound historical source for the formation of development of the diversity and compatibility of the Lingnan region.

As for the criterion (iii):

The sites of the Southern Yue State provide special evidences for the existing and vanished culture of the Yue nationality. Before the Qin Dynasty's conquer, the Lingnan region had been the place of settlement for the Yue people, where they had created the Yue culture represented mainly by the geometric-patterned pottery. Along the integration of the Han and the Yue nationalities, the Yue culture gave way to the Han culture and vanished into the culture of mainstream. The sites of Nanyue, especially the artifacts unearthed from the tomb of the Southern Yue King, are reflections to the lives and customs of the ancient Yue people. They are the living evidences of the vanished Yue culture.

### 3) 서하 황제릉

2013년에 잠정 등재되었으며 탕구트(Tangut) 족이 세운 西夏(1038-1227년)의 황제릉이다. 11-13세기에 축조된 9기의 왕릉, 254기의 배장묘, 거대규모의 건축물 1동, 전돌과 기와를 굽던 10기 이상의 가마로 구성되어 있다. OUV로는 (iii)만을 채택하였는데 지금은 소멸된 탕구트의 문명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하고 있다.

Criterion (iii): Tangut civilization was created by the Tangut people, an ethnic minority

group, and prospered in an agricultural-husbandry area in Northwest China between the 11th and 13th centuries. Occupying a special position in the Chinese history, the West Xia civilization made great contributions to China's diverse culture. As the imperial mausoleums of the Western Xia Dynasty, the Tombs have well preserved the Tangut civilization at the largest scale and in the highest rank, which also could serve as a special witness to the existence of the long vanished Tangut civilization with excellent adaptability and outstanding cultural diversity

#### 4) 명청 황제릉

2000년도에 등재되었고 2003년에 베이징에 있는 무덤이, 2004년도에 선양에 있는 무덤이 추가되면서 확장 등재된 경우이다. 1368년도에서 1915년도까지 명과 청의 황제 무덤 14기가 그 대상이다.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동일한 성격의 유산이란 점에서 가야고분군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OUV로는 (i)(ii)(iii)(iv)(vi)을 채택하였다.

Criterion(i): The harmonious integration of remarkable architectural groups in a natural environment chosen to meet the criteria of geomancy (Fengshui) makes the Ming and Qing Imperial Tombs masterpieces of human creative genius.

Criterion(ii): The tombs represent a phase of development, where the previous traditions are integrated into the forms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lso becoming the basis for the subsequent development.

Criterion(iii): The imperial mausolea are outstanding testimony to a cultural and architectural tradition that for over five hundred years dominated this part of the world.

Criterion(iv): The architectures of the Imperial Tombs integrated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perfectly, making up a unique ensemble of cultural landscapes. They are the exceptional examples of the ancient imperial tombs of China.

Criterion(vi): The Ming and Qing Tombs are dazzling illustrations of the beliefs, world view, and geomantic theories of Fengshui prevalent in feudal China. They have served as burial edifices for illustrious personages and as the theatre for major events that have marked the history of China.

## 2.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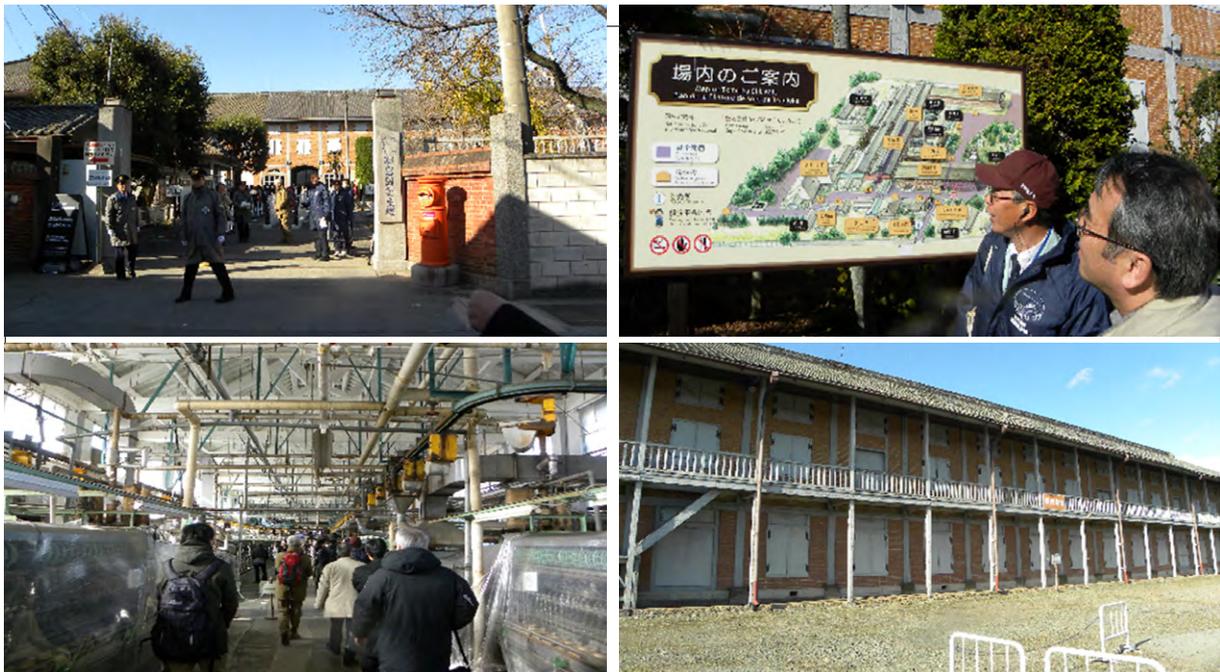
일본은 최근 근대 유산 위주의 등재전략을 택한 것 같다. 2014년에 “토미오카 실크공장”(그림 7), 2015년에 “메이지시대의 산업혁명 유산”, 2016년에 “Le Corbusier의 건축작품, 근대건축운동에의 현저한 공헌”이 연거푸 등재되었다. 2018년에도 “나가사키의 비밀 기독교유적”이 등재되었다. 2017년에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지역의 관련유적”이 오

랜 만에 등재된 전통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정도이다.

현재 등재된 유산 중에 왕릉이 등재된 경우는 없다. 다만 잠정 등재된 유산 중 “아스카-후지와라”가 다카마츠즈카(高松塚)고분과 키토라고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즈-후루이치”는 온전히 고분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가야고분군과 가장 유사하다.

### 1) “아스카-후지와라”

2007년도에 잠정 등재된 “아스카-후지와라(Asuka-Fujiwara: Archaeological sites of Japan's Ancient Capitals and Related Properties)”는 1998년에 등재된 “나라의 역사기념물군” 직전 시기인 아스카시대(592~710년)의 왕성, 사원, 능묘로 구성되어 있다. 능묘로는 벽화고분으로 유명한 다카마츠즈카(高松塚)고분과 키토라고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유산의 OUV는 (i), (iii), (iv), (v), (vi)번을 택하고 있다.



〈그림 7〉群馬의 토미오카 실크공장

### 2) 모즈-후루이치 고분군과의 비교

2010년도에 잠정 등재된 “모즈-후루이치고분군(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Clusters)”은 일본 고분시대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고분시대는 3세기부터 전방후원분이 등장하면서 시작되어 6세기까지 이어진다(그림 9). 시간적으로도 가야고분군과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은 오사카(大阪)府 사카이(堺)시의 모즈(百舌鳥)고분군, 하비키노(羽曳野)시와 후지이테라(藤井寺)시 일대에 분포하는 후루이치(古市)고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마토(大和) 정권의 왕릉과 귀족의 무덤으로 구성되었으며, 시간적으로는 4-6세기 대에 해당되어서 성격과 시기가 가야 고분과 거의 겹친다. 대형의 전방후원분 및 주변의 배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고분은 모즈고분군의 다이센(大仙)고분(傳 仁德陵)과 후루이치고분군의 콘다야마(譽田山) 고분(傳 應神陵)으로서 일본의 전방후원분 중에서 최대급이다.

OUV는 ii, iii, iv 번을 적용하였으며 유사 유산과의 비교서술에서 “경주역사유적지구”와 북한의 “고구려고분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야 고분의 OUV 추출과 신청서 작성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분석할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 보수 중인 다카마츠즈카(高松塚) 고분

(ii) The Kofun Period lasted from the latter part of the 3rd century to the end of the 6th century.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4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the 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Clusters, were a model for many of the kofun constructed in other parts of Japan, serving as an important normative foundation for common techniques and styles of kofun construction throughout the country. Thus, the 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Clusters, represent an important

interchange of human values relative to the construction of burial mounds for the ruling elite of the Japanese archipelago during this historical period.

(iii) From the late 4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the 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Clusters, represented the peak in the development of large-scale kofun, while the variety of smaller tumuli distributed around the major tombs are indicative of the existence in the Japanese archipelago of this period of a unique cultural tradition reflecting the realities of political and social power. Thus, the 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Clusters, bear exceptional testimony to a unique cultural tradition concerning the tomb construction of the Kofun Period.

(iv) The 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Clusters, are groupings of monumental structures built with the large-scale aggregation of labor made possible by the political power of the ruling elites of Japan during the late 3rd to the end of the 6th century, the period of the formation of the ancient Japanese state. This property includes not only the Nintoku-tenno-ryo Kofun, the largest burial mound in the world, but also a variety of other kofun of different sizes, forms, and design, from the large rounded keyhole-shaped kofun to smaller round and square kofun.

As a result, the Mozu-Furuichi Kofungun, Ancient Tumulus Clusters, are an outstanding example, even among other tumulus clusters, that is both representative and typical in its reflection of the political and social of Japan in the period from the late 3rd century to the end of the 6th century.



〈그림 9〉 일본의 전방후원분(좌상: 5세기 대 동북아시아의 대형 고분 비교, 우상: 하시하카고분, 좌하: 오사카 시온지야마(心合寺山)고분 모형, 우하: 다이센고분)

#### IV. 가야고분의 OUV는 어떻게?

현재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 목	내 용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하여야 한다.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iv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	문화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의 이용 또는 해양의 이용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 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 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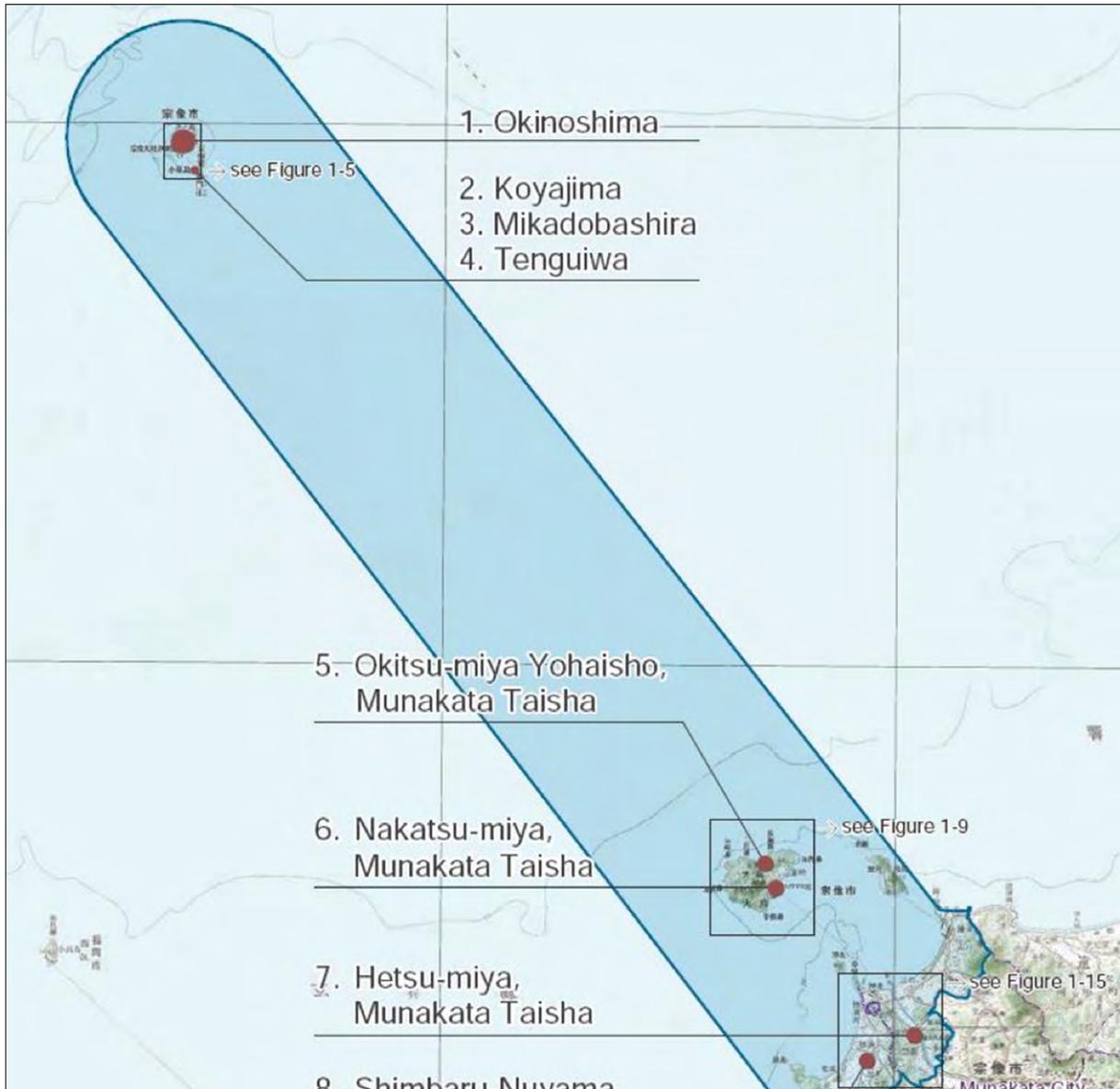
가야고분군과 비교할 만한 동북아시아의 유산들은 대부분 (ii)(iii)을 채택하였다. 서하황제릉은 (ii)를 제외하고 (iii)만 채택하였고, 아스카-후지와라는 (ii)를 제외하고 (i), (iii), (iv), (v), (vi)를 채택하였다. 서하황제릉은 Tangut의 소멸된 문명에 관한 독보적인 증거란 점이 강조된 결과이고 아스카-후지와라는 유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가야고분군이 택할 OUV는 (ii)와 (iii)에서 벗어날 수 없다.

(ii)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교류일 것이다. 이 점에서 가야고분군이 동북아시아의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 양상을 보여줌을 증명하여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불교를 통해 교류를 보여주었지만 가야고분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관, 고분축조기술, 관념(내세관), 부장품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가야고분의 축조기술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 와 있지만 이웃한 신라와 백제와 교류한 흔적, 나아가 고구려와 일본, 중국과 상호 주고받은 영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iii)의 경우는 가야의 역사가 변변한 문헌자료를 남기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서 마치 “소멸된 문명”처럼 간주되었으나 고분 조사를 통하여 “독보적이고 특출한 증거”로서 부활할 사실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 V. 나머지 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참고할 부분을 정리해 본다. 이웃 일본의 예로서, 3세기에 등장한 일본의 전방후원분은 5세기 대에 그 규모가 가장 커지면서 에집트의 쿠푸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과 함께 세계 3대 거대 왕릉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정



〈그림 10〉 오키노시마의 유산과 관리 방안

에서는 불리한 점이 노출되었다. 그것은 천황과 관련된 유산으로 간주되면서 宮内廳이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공통성을 지닌 오키노시마(沖ノ島: 그림 10)가 최근 등재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에 “모즈-후루이치고분군”도 등재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가야고분군의 위상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상정될 수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중심 고분군이 모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야고분군만이 누락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시간대에 속하는 유사한 성격의 유산(고대국가의 왕릉)이 연거푸 등재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이 발생할 것인가?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등재가 가져올 有不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OUV의 서술, 진정성과 완전성의 기술 역시 이

와 연동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고대국가 단위로 왕릉을 등재하였다. 秦, 南越, 西夏,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릉이 단위가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모즈-후루이치 고분군이 야마토 정권의 핵심 왕릉구역임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새로이 등재운동이 추진 중인 남부 큐슈의 사이토바루고분군,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이 적지 않은 칸토(關東)지역의 고분군 등재 운동이 본격화되면 하나의 고대국가의 중심지(도성지역)의 왕릉이 아닌 지방 수장층의 무덤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가야고분군의 경우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왕릉,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왕릉,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 왕릉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고성과 합천, 창녕, 남원 등이 추가될 경우 이 유산들의 성격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을 시작하여야 한다. 가야의 시간적, 공간적 정체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

가급적 많은 유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왜 공주, 부여, 익산의 많은 유산을 제외시켰는지, 한성기의 서울 강남의 유산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 金世基, 1997『加耶의 殉葬과 王權』『加耶諸國의 王權』신서원.
- 洪潛植, 2000『考古學을 통해 본 金官伽耶』『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1.
- 李盛周, 2000『考古學을 통해 본 阿羅伽耶』『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한국고고학회 학술총서1.
- 都出比呂志, 2000『王陵の考古學』岩波新書.
- NHK大阪, 2004『大王陵發掘! -巨大はにわと繼體天皇の謎』.
- 조영제, 2007『옥전고분군과 다라국』해안.
- 강현숙, 2009, 「고구려 고지의 발해 고분 - 중국 요녕지방 석실분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 성정용, 2009, 「중부지역에서 백제와 고구려 석실묘의 확산과 그 의미」 『횡혈식석실분의 수용과 고구려 사회의 변화』 동북아역사재단.
- 문화재청 엮음, 2010『한국의 세계유산』늘와.
- 권오영, 2012, 「묘제와 장제를 통해 본 가야와 일본의 비교」, 『가야유적의 역사적 위상과 세계유산 가치 연구』경상남도□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13, 『백제의 능묘와 주변국 능묘의 비교연구』.
- 국립경주박물관, 2015『일본의 고큰문화』.

권오영, 2018, 「유라시아 고분과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의 OUV」,  
『가야고분군 I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2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日文>

都出比呂志, 2000, 『王陵の考古學』 岩波新書.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2003, 『壁畫古墳の流れ』.

NHK大阪, 2004, 『大王陵發掘! -巨大はにわと繼體天皇の謎』.

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2004, 『前方後方墳』.

大阪府立近つ飛鳥博物館, 2007, 『横穴式石室誕生 -黄泉國の成立』.

右島和夫·千賀久, 2011, 『列島の考古學-古墳時代』 河出書房新社.

21, 徳島大學總合科學部.

## 「주변지역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군의 OUV」에 대한 토론문

조영제 경상대학교 교수

첫째, 가야고분군이 택할 OUV는 (ii)와 (iii)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는데, (iv) 항목의 ‘경관의 탁월한 사례’로서 가야지배층 고분의 위치를 선정할 수는 없는가?

주지하다시피 가야 지배층의 고총들은 고구려, 신라, 백제 지배층들의 무덤들과는 달리 모두 야산의 능선부를 점거하면서 축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이나 낙동강 본류나 지류에 인접해 있는 공통성이 있으며 이는 가야고분군만의 탁월하면서 의미(고분을 거대하게 보일려는 의도와 대외교류의 유리한 지형)있는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모두 금관가야와 아라가야, 대가야의 왕릉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고성과 합천, 창녕, 남원 등이 추가될 경우 이 유산들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에는 소가야 또는 고자국, 합천에는 다라국, 창녕에는 비화가야가 있었으며, 각 지역에 축조된 고분군은 모두 이러한 가야소국의 왕릉 또는 지배층의 무덤임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발표자는 달리 생각하고 계신 듯 합니다. 혹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다만 남원지역의 경우 문헌사학자들 사이에 다소 논란이 있으나 월산리, 두락리고분군 축조자들을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문국(己汶國 또는 奇物國)의 지배집단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셋째, 고구려, 백제, 신라, 왜의 중심 고분군이 모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야고분군만이 누락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시간대에 속하는 유사한 성격의 유산(고대국가의 왕릉)이 연거푸 등재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이 발생할 것인가? 모즈-후루이치고분군의 등재가 가져올 유불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주변지역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군의 OUV」에 대한 토론문

성 정 용 충북대학교 교수

권오영선생님은 가야고분의 OUV(Oustanding Universal Value)를 추출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서, 고구려(북한 등재한 고구려고분군은 OUV i, ii, iii, iv, 중국이 등재한 고대 고구려 수도와 묘지는 OUV i, ii, iii, iv, v 적용)와 백제(OUV ii, iii 적용), 신라(OUV ii, iii 적용) 고분 외에, 중국의 진시황릉(OUV i, iii, iv, vi 적용)과 남월국유적(OUV ii, iii 적용)·서하 황제릉(OUV iii 적용)·명청 황제릉(OUV i, ii, iii, iv, vi 적용), 일본의 아스카-후지와라(OUV i, iii, iv, v, vi 적용)와 모즈-후루이치고분(OUV ii, iii, iv 적용)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각자 어떤 OUV항목으로 등재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6개의 OUV항목 중에 가야고분군과 비교할만한 동북아시아 유산들은 대부분 등재기준(ii)와(iii)을 채택하고 있는 바, 가야고분군의 OUV도 역시 이 항목들을 위주로 추출해야 하지 않을까 제기하고 있다.

(ii)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교류로서 가야고분군이 등재기준인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양상’을 보여줌을 증명하기 위해 축조기술 측면에서 고구려와 일본, 중국과 상호 주고받은 영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iii)의 경우도 가야 역사가 문헌자료가 없어 미궁에 빠진 듯한 ‘소멸된 문명’처럼 보이지만 고분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독보적이고 특출한 증거’를 찾아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등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야고분군’이라는 역사적 소산물의 현상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꼭 필요한 지적이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 토를 달기 어렵다. 다만 권오영선생님이 제기한 가야고분의 축조기술을 교류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가야고분군들이 갖고 있는 경관적 탁월함과 연계하여,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OUV (iv)번 항목도 등재를 위해 적극 고려할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금관가야·아라가야·대가야 왕릉군은 잔존 양상이나 역사성·상징성 등에서 등재대상으로 하는데 하등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고성·합천·창녕·남원 등 여러 지역의 가야고분들을 등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포함한다면 이들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또한 너무 타당한 지적인 바, 등재대상에 가야고분군이 많이 포함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너무 많은 대상으로 인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지역의 가야고분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여쭙어보고 싶다.

## 「주변지역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군의 OUV」에 대한 토론문

곽 장 근 군산대학교 교수

종래에 축적된 방대한 분량의 고고학 자료에 바탕을 두고 ‘주변지역 고분과의 비교를 통해 본 가야고분의 OUV’를 일목요연하게 조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구려·백제·신라 등 국내 고분과의 비교,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외 고분과의 비교, 가야고분의 OUV는 어떻게? 등으로 나누어 가야고분의 OUV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야고분의 OUV에 큰 관심을 갖고 줄곧 가야고분군의 탁월성을 연구해 온 발표자의 열정과 신념이 담긴 결과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 경관, 고분 축조 기술, 관념(내세관), 부장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교류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어 향후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준비에 큰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발표문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안을 질의함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문물 교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월산리 고분군 내 가야고층에서 나온 유물을 한데 모아 보면 다양성과 국제성으로 상징됩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에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품과 흡사한 獸帶鏡과 금동신발이 출토되었습니다. 금동신발은 몸통부에 타출기법으로 능형문과 영락이 장식되어, 공주 무령왕릉과 익산 입점리 1호분, 나주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흡사합니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제 청자인 鷄首壺는 백제왕의 주요 하사품으로 알려진 최상급 위세품으로 공주 수촌리, 천안 용정리, 서산 부장리 등 백제의 영역에서만 나왔습니다. 신라의 천마총과 황남대총 출토품과 흡사한 鐵製鏃斗를 비롯하여 금제 귀걸이, 갑옷과 투구, 경갑, 기꽃이, 다양한 구슬류 등 가야의 威身財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원 유곡리·두락리 36호분은 매장주체부가 횡혈식 석실분으로 가야의 중대형 고층의 내부 구조도 백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에 수혈식이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뀝니다. 연도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과 상통합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15호분에서 나온 은제목걸이와 은제구슬, 유리구슬, 탄목구슬에서 무령왕릉 출토품과의 친연성도 흥미롭습니다. 가야 고층에서 나온 유물의 조합상과 횡구식, 횡혈식 등 백제 묘제의 등장을 근거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마한과 백제, 가야를 하나로 묶는 국내문물교류의 중심지였을 개연성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주석곽 동쪽에 부장된 獸帶

鏡은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서 배면이 위로 향하도록 부장되어 있었는데, 전면에서는 주칠흔이, 경면에서는 주칠흔·포흔·수피흔·목질흔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면에 새겨진 농은 ‘宜子孫’ 명문 등 청동거울의 속성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수대경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群馬縣 觀音山과 滋賀縣 三上山下 고분에서 나온 수대경과도 유물의 속성이 서로 상통합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32호분 나온 수대경은 무령왕릉 출토품보다 30년 남짓 앞서는 것으로 중국 남조와의 국제외교가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도 중국제 鷄首壺가 출토되어 더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더욱이 계수호는 일상용품이 아닌 부장용품이기 때문에 백제왕의 하사품보다 오히려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이 중국 남제에서 직접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학자의 견해가 발표되어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동북아 수대경의 출토 양상과 계수호를 근거로 남원 유곡리·두락리·월산리 고분군이 당시 동북아 문물교류의 거점이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견해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세력이 백제 혹은 신라에 정치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북 동부지역에 대규모 제철유적을 남긴 철의 장인집단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대거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에서 철기문화의 발전이 전북 동부지역 철 도래인들의 이동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 역자형 비대칭 철촉 등 철기류가 일본에서 출토되었고, 일본에서 니켈이 함유된 철기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많은 제철유적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까지 이어진 동북아 아이언로드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동북아 아이언로드를 추정 복원해 보면 제나라 전횡의 망명 혹은 고조선 준왕의 남래-전북혁신도시(만경강유역)-전북 동부지역(장수 남양리, 지리산 달궁계곡)-일본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은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로서 중국의 철기문화가 일본에 전래되는데 가교 및 교량역할을 담당하였을 개연성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